

토경재배용 시설딸기 표준진단표 개발

박길석*, 김성란*, 정수진*, 정경진*, 최경락*, 강찬희*, 신주련*, 장영호*
*경상남도농업기술원
e-mail:c3600@korea.kr

Development of a Standard Diagnosis Tables for strawberry Checklist for Land-Based Cultivation

Gil Seog Park*, Seong Ran Kim*, Su Jin Jeong*, Kyeong Jin Jeong*, Kyeng Lag Choi*, Chan Hee Kang*, Ju Ryeon Shin*, Young Ho Chang*
*Gyeongsa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요약

농촌진흥청에서는 1998년부터 작목별 표준진단표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까지 60개의 표준진단표를 만들었다. 표준진단표는 농가경영 컨설팅을 위한 일종의 도구이다. 딸기 표준진단표는 초기에 만들어진 후, 2019년에 수정딸기 표준진단표를 만들었으나 토경재배에 대한 진단표는 만들어지지 않아 기존의 토경재배와 수경재배와 혼용된 진단표를 사용함으로써 토경재배 시설딸기 진단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토경재배용 시설딸기 표준진단표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딸기 주요 생산지역 20개소와 딸기 월별 주출하 시군을 기준으로 주산지역 딸기전문지도사 15명을 선정하여 델파이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를 하기 전에 기존의 시설딸기 표준진단표는 문헌조사와 딸기재배 전문연구자의 자문을 거쳐 1차적으로 토경재배용 시설딸기 표준진단표를 완성하였다.

1차적으로 완성된 표준진단표는 e-mail을 통하여 기존에 선정된 15명의 시설딸기 전문지도사가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경영성과 지표는 1차에서 전원 일치율을 보였고, 진단표 구성분야 및 요소에서 7개(관수시설, 탄산가스 사용, 적과·적퇴, 연작대책, 선별, 농업정보 활용), 세부진단항목에서 3개(보온개시 시기, 병해충 방제, 육묘시설)가 불일치를 보였다.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딸기재배 전문연구자와 병해충 전문연구자의 자문을 거쳐 불일치 항목에 대하여 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결과 완전일치율을 보였고,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후 최종적으로 토경재배용 시설딸기 표준진단표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표준진단표는 구조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농가 일반현황, 두 번째는 경영성과 지표, 마지막은 세부평가지표이다. 농가 일반현황은 경영주 인적사항 중 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꾸고 FAX 번호를 삭제하였으며, 연간 추정농업소득을 단순화 하였다. 경영성과지표는 경영규모를 상향 조정하였다. 세부평가지표는 기존의 5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통합하였다. 시설 및 자동화 분야는 시설구조, 보온 및 가온시설, 광관리, 관수시설, 환경자동화, 농작업 기계화, 농작업 생력화, 탄산가스 사용 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재배 및 환경관리 분야는 이랑준비, 보온 개시시기, 활착관리, 수정, 적과·적화·초세관리, 병해충 방제, 기비, 추비, 관수, 연작대책 10개 항목으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육묘관리는 품종선택, 무병모주 갱신, 육묘시설, 육묘방법 4개항목으로 경영관리는 선별, 품질인증, 협업경영, 경영기록 및 분석, 자금관리, 농업정보 활용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토경재배용 시설딸기 표준진단표는 기존의 표준진단표를 토경재배와 수경재배로 분리함으로써 시설딸기 재배농가의 진단을 심도있게 할 수 있고, 농업경영과 농업기술 환경에 맞추어 세부항목별 기술단계를 조정하여 줌으로써 농가간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위 연구결과는 농촌진흥청 출연금과제(PJ01485403)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